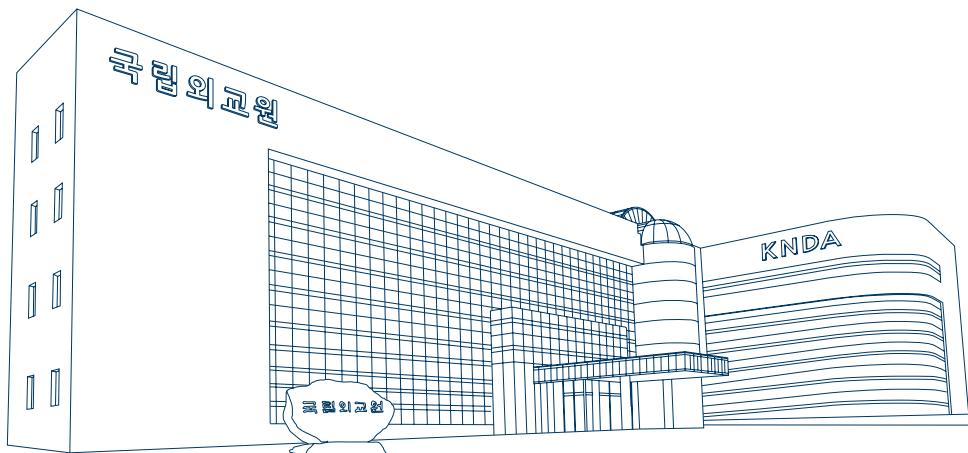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라시아 정책: 대전략의 전환은 가능한가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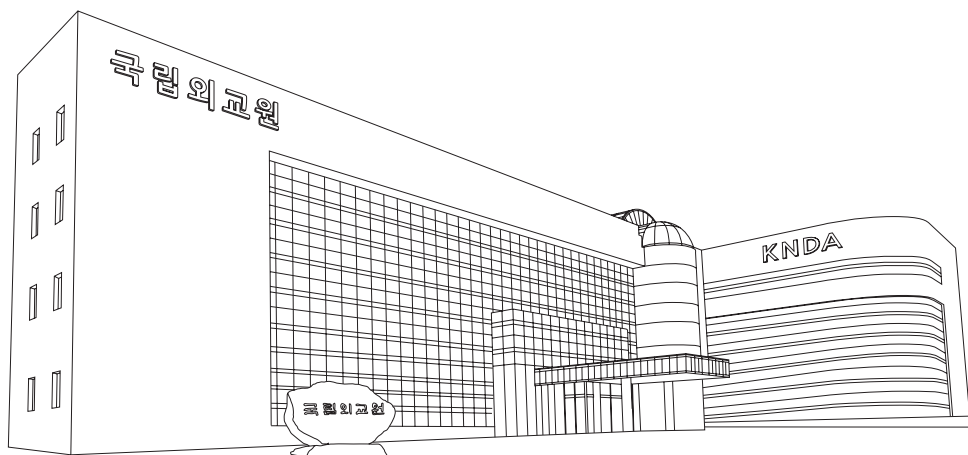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라시아 정책: 대전략의 전환은 가능한가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라시아 정책: 대전략의 전환은 가능한가

발 행 2018년 1월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 행 인 국립외교원장

주 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전 화 3497-7760 (代)

팩시밀리 571-1032

홈페이지 www.knda.go.kr
www.ifans.go.kr

디자인·인쇄 웃고문화사 (02-2267-3956)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비매품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라시아 정책:
대전략의 전환은 가능한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입안과 시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외 정책기조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연구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목 차

요약	1
I. 서론	3
II. 미국과 러시아 관계	4
1. 러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4
2.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	7
3.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관계 개선 모색	8
III. 미국과 중국 관계	9
1. 중국의 지정학적 환경	9
2.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화해 노력 지속	15
IV. 미국과 인도 관계	16
1. 인도의 지리·인구·종파적 환경	16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인도 관계 강화 모색	17
V. 중국과 러시아 관계 (일대일로 정책과 유라시아경제연합)	18
VI. 중국과 인도 관계	20
1. 인도·중국 간 지정학적 환경	20
2.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 군사적 대치 상황 해소	22
VII. 결론: 대전략의 전환은 가능한가	22

요 약

유라시아 대륙에는 수많은 주권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 등 3대국이 광대한 영토와 인구 등 지리,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들로, 이란과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NSS 보고서는 현 국제 상황을 ‘미국 vs. 중국·러시아’ 경쟁으로의 회귀로 규정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국제 정치 추진 전략을 밝혔다. 동 보고서는 오늘의 세계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수용하는 세력 균형과 지정학이 작동하는 세계로 규정하고, 군사적·경제적 힘이 중요함을 인정했다.

2018년 한반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로 서로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각자 자국의 전략적 균형을 세심하게 유지하고 있어 비극적인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1년까지 ‘샤오강 사회(小康社会)’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4선 연임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현 푸틴 대통령이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의 대전략(grand strategy) 전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친밀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유라시아 대륙 정책 전환은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2018년에 미국과 중국 관계는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경쟁적이며 협력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위요하고 미국은 대북한 압박을 가속화해 줄 것을 중국에 지속 요청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미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거절하며 최대한 버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은 대북한 원유 잠정 차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 내 북한 근로자 철수,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등 고강도의 대북한 제재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 포위·봉쇄 전략에 대응하여 2018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한국 측에 제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제재와 압박 국면을 회피하면서 아직 부족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수소폭탄 기술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대러시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전환은 핵 강대국인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유라시아 대륙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2016년 러시아가 미 대선에 관여했다는 것을 발표했고, 특별 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 미 대선 개입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 균형 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로 인해 미국 내 대러시아 여론이 악화되어, 대러시아 관계 개선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7년 7월 미 의회는 러시아, 북한,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함께 제재 법안에 포함시킨 미 의회를 비난했으나, 미 의회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문화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관계 개선 정책은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사실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 활용하여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강대국들(중국, 러시아, 인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이들 국가들 간 상호 관계, 대외 정책,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상황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파악해 보려고 한다.

Ⅱ. 미국과 러시아 관계

1. 러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6백만 제곱마일의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11시간의 시차가 있는 러시아의 인구는 1억4천여만 명으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보다 적다.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는 ‘키예프 공국’ 또는 ‘키예프 루시(Kievan Rus)’로 알려진 동슬라브 부족 연방의 일원이었는데, 오늘날의 드네프르강에 정도(定都)한 우크라이나이다. 러시아 영토 규모는 미국과 중국 영토의 2배이며, 인도의 5배이고, 영국 영토의 70배다. 우랄산맥 서쪽 지역은 유럽 러시아이며, 우랄산맥 동쪽 지역은 시베리아다. 비록 러시아 영토의 75%가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 지역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는 22%에 불과하다. 서부 러시아와 동부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는 2개, 즉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와 바이칼-아무르 간선 철도(BAM: Baikal-Amur Mainline)밖에 없다. 러시아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연결하는 수송 수단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몽골이나 중국으로 힘을 투사하기는 쉽지 않다. 우랄산맥과 에니세이강 사이에 위치한 서시베리아 평원에 있는 도시들에는 중국 식당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지역은 중국 정치·문화 영향권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안보에 필요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 간주하고 있다. 1605년에 폴란드가, 1708년에는 스웨덴이 북유럽 평원인 러시아 정주 지역을 침범했다. 1812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의 모스크바 공격과 1941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스탈린그라드 진격은 모두 실패했는데, 보급 라인이 길어진 것이 패배 원인이었다. 러시아 극동은 러시아를 보호하는 지리학이다. 13세기 몽골은 러시아 지역을 점령했는데, 러시아가 몽골의 침입을 피해 동북 지역으로 피신한 지역이 현재의 모스크바다. ‘모스크바 대공국(Grand Principality of Moscow)’으로 통칭되는 초기 러시아는 산도 없고 사막도 없고 강도 거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평지였다. “이반 뇌제(雷帝)(Ivan the Terrible)”로도 불리는 이

반 4세 바실리예비치(Ivan IV Vasilyevich)는 최초로 “공격이 방어”라는 전략을 수립한 황제다. 이반 4세는 1533년 황제 취임 후 동쪽으로는 우랄 이 동, 남쪽으로는 카스피해, 흑해, 코카서스 산맥 지역, 북쪽으로는 북극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체첸 지역에는 군사 기지를 두어 몽골 오트만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등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방어진을 구축했다. 현재 러시아는 국가 방어에 필요한 부분적 완충지대(a partial buffer zone)와 배후지(a hinterland, strategic depth)를 보유하고 있다. 1721년 러시아 제국을 창설한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와 캐서린 여제(Catherine the Great)는 서쪽으로 눈을 돌려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여 유럽 최강국의 일원이 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오스만 투르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 크림리아 전쟁 결과 체결된 1856년 파리 조약에 따라 베사라비아 일부가 몰도바에 반환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다뉴브강으로의 접근이 단절되었다. 러시아가 다뉴브강 접근을 확보하는데 백 년이 걸렸으나 소련의 붕괴로 다시 동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러시아는 몰도바의 전략적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트랜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를 통해 몰도바 일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스탈린은 크림리아반도에서 타타르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러시아인들을 대규모로 식민한 것처럼, 트랜스니스트리아 지역에도 러시아인들이 정주토록 했다. 러시아는 1991년 몰도바로부터 독립한 트랜스니스트리아 지역에 2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몰도바에서 흑해를 가로질러오면 조지아가 위치해 있는데, 2008년의 러시아-조지아 전쟁 결과 조지아 영토였던 압하지야, 남오세티야가 러시아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에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석유와 가스다. 라트비아·슬로바키아·핀란드·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가스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체코·불가리아·리투아니아는 80%, 그리스·오스트리아·헝가리는 60%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절반 정도의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러시아 가스에 13%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

들의 항구가 LNG선 하역을 위해 터미널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정학에 기반을 둔 경제 전쟁이며, 또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정학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에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30년간 계약에 따라 4천억 불 상당의 러시아 가스가 중국에 공급될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라는 시기는 지나갔으며, 1945년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는 시기는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중립 확보와 크림미아 세바스토폴 항은 러시아에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터키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제하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가 세바스토폴 항에서 흑해를 거쳐 지중해로 접근하는 데는 1936년 체결된 몽트뢰(Montreux) 조약이 제한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 함정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할 수는 있으나 제한된 수만 가능하며, 전시에는 불가능하다. 러시아 군함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더라도, 지중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게해를 지나야 하며, 대서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 인도양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한다.

러시아 해군에게 또 다른 전략적 문제점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러시아 해군이 발트해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NATO 회원국들인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통제하는 북해로 연결되는 좁은 스카게라크(Skagerrak) 해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군함들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더라도 대서양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해의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이 통제하는 소위 'GIUK(Greenland, Iceland, United Kingdom) 갭(gap)' 바다를 통과해야 한다.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의 지중해 도시인 타르투스에 소규모 함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주요 해군 전력이 아니며, 제한된 범위의 보급을 담당하는 군항일 뿐이다.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인구 4명 가운데 한 명이 인종적으로 러시아계 인구이며, 리투아니아에는 5.8%의 러시아계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가스 등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피터 대제,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등 러시아 지도자들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항구는 아직도 얼고(freeze), 북부 유럽 평원은 여전히 평지(flat)”라는 것이다.

2.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선대위의 러측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조사하고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존 매케인(John McCain), 밥 코커(Bob Corker),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비판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물러 특별검사의 트럼프 선대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2018년 중간 선거, 2020년 대선 등이 미 국내 정치의 주요 변수들이다.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미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상원의 다수당 지위 유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선거를 치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교체할 생각인데,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다수당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선대위 인사들의 러시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는 당시 트럼프 선대위 위원장이었던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긴밀한 비즈니스, 정치적 유대 관계를 유지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올레그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는 기소 면제 조건으로 미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문제를 증언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런데 미 의회는 FBI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면서 데리파스카의 제의를 거부했다. 데리파스카는 한때 알루미늄 세계 최대 생산업체인 ‘루살(RusAl)’ 회장을 역임했다. 매너포트 트럼프 선대위 위원장이 운영해온 정치 컨설팅 회사인 ‘디엠펜(DMP) 인터내셔널’은 2004년부터 우크라이나, 조지아, 몬테니그로 등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2015년까지 활동해 왔다. 매너포트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10년 이상 긴밀한 정치적,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데리파스카는 조지아 프로젝트(The Georgia project)를 위해 매너포트 회사(DMP)를 고용했다. DMP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데리파스카와 함께 일했으며 우크라이나 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다. 물러 검사는 매너포트를 로비법 위반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7월 특별검사 사무실은 매너포트 거주 버지니아 집을 압수 수색했는데, 매너포트는 2012~2014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관련 업무 수행 대가 1천 7백만 불을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 정당들로부터 수령했다. 매너포트는 2016년 8월에 트럼프 선대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물러 특별검사는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플린 전 안보보좌관은 특검에 대한 수사 협조 조건으로 특별검사 측과 형량 조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러시아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 특검에 제러드 쿠슈너(Jared Kushner) 트럼프 대선 후보 사위가 세르게이 키슬랴크(Sergey Kislyak) 주미 러시아 대사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집행을 방해(obstruction of justice)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미 정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미 의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2018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사법 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관계 개선 모색

역대 미국 정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지만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할 요소도 발생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러 간 협력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2016 미 대선 개입 문제는 미·러 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 의회는 반러시아 입장으로 돌아섰고, 미 언론도 러시아에 적대적인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트럼프 재임 기간 미·러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러 간 합의로 시리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며, 시리아 평화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도 예상된다. 부연하면,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 비극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인데, 이런 점에서 구소련 재건을 모색하는 푸틴과 미국이 좋은 관계를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트럼프·푸틴 간 개인적 친밀 관계를 통해 시리아 평화 확보 등으로 중동 지역 상황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아시아, 유럽, 중동과 육로로 연결되는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 붕괴로 인해 러시아가 전략적, 지정학적 우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다. 유럽과 중동에서, 특히 시리아 문제에서 미·러 양국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2018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상황이 중요한 해인 것이다. 따라서 대외 문제는 일시적 소강 상황을 보일 수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적 목표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나,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이다. 북·중 간 교역 규모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북·러 간 무역 규모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Ⅲ. 미국과 중국 관계

1. 중국의 지정학적 환경

중국 문명의 발원은 4천 년 전 중원(Central Plain)에서 시작되었다. 중원

은 내몽골 아래, 만주 남쪽, 황하강 주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양쯔강 아래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중국의 황하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에 비교할 수 있으며, 중국 문명의 요람이다. 중원의 북쪽으로는 고비 사막과 몽골이, 서쪽으로는 티베트 고원이 되어 히말라야에 이르며, 남동쪽과 남쪽으로 가면 바다에 이른다. 북중국 평원으로 알려진 심장부(중원)는 두 개의 강을 가진 2모작이 가능한 비옥한 평야 지역이다. 중국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은 만다린(mandarin)과 켄토니즈(cantonese) 등 다양한 지역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만다린은 주요 언어다. 만다린 서체는 켄토니즈 및 다른 지역 중국어들과 유사한데, 구어체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절반 정도 크기인 중원 지역에는 약 10억 명의 한족이 거주하는데, 중국인들은 러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심장부를 만들고 심장부 주변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만들어 심장부를 방어하며 “공격을 방어”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다. 일례로 한족은 60년 전 티베트를 병합하고 통제하고 방어해 왔다.

5세기 공자 시대 이래로 중국은 문명화된 중국과 미개한 주변 지역을 구분해 왔다. 6세기 수나라 때 황화강과 양쯔강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건설되었는데, 이로 인해 북부와 남부 한족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1279년 쿠빌라이 칸이 한족을 제압하고 이민족이 최초로 중국을 90여 년간 지배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중국은 남쪽으로 버마 일부와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으로 신장 지역을 점령했다. 신장 지역은 무슬림 거주 지역으로 통제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한족에게는 완충지대로서 신장 지역 확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중국은 19~20세기에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세력과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많은 수모를 겪었다. 특히 1932년과 1937년에 일본은 중원과 만주, 내몽골 지역을 점령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몽골 지역에서 철수했고 소련군이 이 지역을 1946년까지 점령했다. 중국은 1951년에 티베트를 합병했다. 중국은 북쪽에서 몽골과 2,906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고비 사막이 중국과 몽골 국경에 걸터앉아 있는데, 고비 사막은 조기경보 시스템이며 방어선이다. 중국의 동쪽 지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는 1억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인은 7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삼투압 현상이 심각하다. 히말라야는 중국과 인도를 지리적으로 나누고 있다. 카라코람산맥은 중국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 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이 악사이 칭(Aksai Chin)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을 두고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전쟁을 했다. 중국과 인도 국경은 실제로는 티베트와 인도 간 국경이다. 이것은 두려움의 지정학인데,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할 수 없다면, 인도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인도는 티베트 고원의 commanding heights와 중국 증원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기지, 그리고 중국의 첫줄인 황하, 양쯔, 메콩강의 수원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티베트가 “중국의 급수탑(water tower)”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를 말해 준다. 중국은 티베트 지역에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켰다. 티베트는 중국의 지정학적 안보가 되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나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쿤룬산맥이 신장과 티베트를 분리하고 있어 쿤룬산맥을 거쳐 티베트 수도 라싸까지 기차 길을 부설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중국인들은 2006년에 기차길을 설치했다. 현재 북경과 상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열차가 매일 하루 4차례씩 라싸에 도착한다.

중국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접해 있는데, 이곳은 옛 실크로드 지역이다. 이론적으로 이곳은 중국 방어에 약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카자흐스탄 국경의 동남쪽은 반자치지구인 신장 지역인데, 위구르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신장 지역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위구르족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두 차례 동(東)투르크িস탄으로 독립을 선언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인종 간 폭동이 발생하여 2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중국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는데 무력으로 가차 없이 제압했으며, 이 지역에 돈을 투하했고, 한족 근로자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중국으로서는 신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어서, 독립을 부여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신장 지역은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장부에 대한 완충 지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등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중국의 핵실험 지역이기도 하며, 경제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의 핵심 지역이다. ‘일로’는 신장을 통해서 직통으로 갈수 있는 옛 실크로드 루트에 근거한 육상로이다.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에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항만 공사는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중국 물품들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 파키스탄을 거치는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다. 2015년에 중국은 파키스탄과 과다르항 40년 임대 계약에 서명했다. 이것은 일대일로가 연결되는 길의 한 부분이다. 신장을 가로지르는 대부분의 뉴타운과 신도시들은 한족들로 채워졌는데, 일례로 수도인 우루무치로부터 85마일 떨어진 신도시 시해지(Shihezi) 인구는 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62만 명이 한족이다. 세계위구르총회(World Uighur Congress)가 독일에 있고, 동투르키스탄해방기구(East Turkestan Liberation Organization)가 터키에 있는데,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은 달라이 라마(Dalai-Lama) 같은 지도자가 없으며, 그들이 주창하는 내용이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다. 신장과 티베트는 모두 완충 지역인데, 신장은 주요 육상 무역 통로이다. 티베트와 신장은 중국이 지속 성장하고,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15세기에 정화(鄭和)는 인도양을 뱃길로 여행했는데, 케냐까지 갔었다. 그러나 정화의 원정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지,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는 아니었다. 중국은 이제 대양 해군 건설을 시작했다. 2015년에 5척의 중국 군함이 알래스카 해안 지역인 미국 영해를 통과하여 항행했으며, 베링해는 중국 군함이 북극해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의 뱃길이다. 중국과 태평양 간에는 중국이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으로 부르는 군도들이 있고, 중국은 대만을 포함시킨 구단선(nine-dash line)을 주장하고 있다. 200개 이상의 작은 섬과 암초들에 대한 소유권 분쟁 문제이고 자유항행 원칙의 문제인 남중국해 문제는 인접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 인도, 일본 등 강력한 주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일본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유럽 진출을 막고 있고, 인도양에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인도는 중국의 중동 진출을 막고 있다. 이들 강력한 주변국들과의 국경 지역에는 예외 없이 자치 독립을 열망하는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는 취약점이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이이제이(以夷制夷), ‘가까이 있는 적과 싸울 때는 멀리 있는 적과 화평을 유지하라’ 등 대부분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차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전략 목표는 중국 국경 지역에서 적들이 연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중국은 모든 문제에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구체 사안에 대해 완전히 통달할 것을 너무 강조하면 우주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상대적 이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중국 주변 지역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열등하지만,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민족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중국의 북서쪽으로는 만주인, 몽골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러시아인 등이 거주했는데, 이들은 수시로 중국을 침범했다. 남서쪽으로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한반도, 일본과 인접하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14억 중국 인구 중 약 90%가 한족이다. 중국은 한족을 포함,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데, 55개 소수 민족 가운데 장족, 몽골족, 위구르족, 회족, 조선족 등은 인구가 백만 명이 넘으며, 장족은 약 1천5백만 명에 이른다. 중국의 소수 민족은 주로 동북, 화북, 서북, 서남, 동남, 연해 지방에 거주하는데, 장족은 주로 서장 자치구에 거주하며 그곳에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청장고원(青藏高原)이 있다. 몽골족의 주요 거주지는 내몽골 지방의 대초원이며, 조선족은 주로 길림성의 연변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다. 운남 지역은 소수 민족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30여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군함들이 남중국해로부터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든 인도양으로 나가려고 하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중동으로 가려면 베트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다를 통과해야 하며, 필리핀 바다 근처에도 가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들이다. 말라카는 가장 좁은 부분이 2마일밖에 되지 않는 매우 협소한 해협이다. 2016년 가을까지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에 소재하고 있는 큰 암초인 미스치프(Mischief)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바닷물 밖으로 조금 돌출해 나와 있는 분쟁 중인 수백 개의 환초들과 바위들 하나하나가 외교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바위는 어업권, 자원 탐사권, 주권 등에 있어서 잠재적인 분쟁거리다. 중국은 준설, 땅 매립 등을 통해 분쟁 지역에 있는 일련의 암초들과 환초들을 섬으로 만들었다. 일례로,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에 항구와 활주로를 만들었다.

미국이 스페인을 쿠바에서 밀어내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강대국이 된 것을 본떠서, 중국도 태평양과 인도양의 강대국이 되려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심해 항만(deep-water ports)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양과 벵골만 소재 항구들은 중국의 장래를 확보하기 위한 큰 계획의 일환이다. 미얀마의 서부 해안으로부터, 중국은 벵골만과 중국 남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필요 에너지의 80%가 통과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미얀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과 일본이 미얀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중국의 의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 특별한 게임에서 중국은 이기고 있다. 만약 미국이 미얀마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이 중국의 노력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케냐에 항구들을 짓고 있고, 앙골라에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에 수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 일본과 심각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오로지 진정한 위협은 중국 자신이 될 것이다.

중국은 상당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데, 만약 서방이 중국이 만든 물건들을 사지 않으면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물건들을 만들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대도시 에 모여 사는 중국인들에게 대규모 실업의 발생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사회적 소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2.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화해 노력 지속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미·중 간 화해를 모색하던 1960년대 말 미·중 양국은 각각 베트남 전쟁과 문화 혁명의 와중에 있었다. 당시 중국의 국경 지역은 위기 상황이었는데, 특히 북쪽에서는 소련과 군사 충돌 위기에 있었다. 닉슨 대통령은 전임자로부터 베트남 전쟁을 물려받았는데, 미 국내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한 후 미국과 중국은 20년간 타협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해 왔는데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현안이 되었다. 1970년 초 닉슨 대통령은 북경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는데, 유라시아 대륙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 균형 정책의 일환이었다. 1979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유라시아 정책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핵 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강대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인데, 여기에 외부 세력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과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계는 세

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 미·중 관계는 19세기의 영·독 간 경쟁자 관계에 비유되기도 하나, 양국은 진정한 전략적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한반도, 무역 정책과 긴밀 연계되어 있다.

IV. 미국과 인도 관계

1. 인도의 지리·인구·종파적 환경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1,900마일의 국경을 파키스탄과 접하고 있는 인도는 남동쪽으로 벥골만, 남쪽으로 인도양, 남서쪽으로 아라비아해와 접해 있으며, 북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소재 카라코람산맥과 북동쪽으로 파키스탄 소재 힌두쿠시산맥이 있다. 힌두쿠시 산맥 동쪽에 위치한 카라코람산맥은 히말라야산맥과 연결되는데, 히말라야산맥은 중국, 미얀마와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곡선으로 구부러지는 곳에 방글라데시가 있고 벥골만으로 연결된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가운데 네팔과 부탄은 중국과 인도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빈곤한 나라들인 반면,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벥골만으로 둘러싸여 있다. 벥골만의 빈번한 범람으로 방글라데시 저지대가 홍수로 자주 범람한다. 방글라데시는 인도, 미얀마와 2,545마일의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인도는 추운 북쪽 히말라야 지역과 남쪽의 정글 지역 등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 그리고 갠지스, 인더스, 브라마푸트라 강들로 인해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가 어렵다. 시크족이 거주하는 펀자브 지역과 타밀어를 구사하는 타밀 나두 등이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곳들이다. 뉴델리는 언어, 종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며, 이슬라마바드도 파키스탄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한다.

무슬림의 최초 인도 지역 침입은 7세기 초였는데, 우마야드 칼리프 아랍족이 현재 파키스탄 지역인 펀자브까지 진출했다. 이후 18세기까지 다양한

무슬림들의 침략이 있었는데, 인더스강 계곡 동쪽 지역의 힌두 인구 다수가 개종을 거부한 결과 인도의 궁극적 분할의 씨가 뿌려졌다. 인도는 오랜 언어 차이에 따라 이슬람 지역인 펀자브와 힌두 지역인 구자라트로 나누어졌다. 1947년 6월 3일 후기 식민주의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분파주의 세력으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고,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반기를 들고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힌두, 시크, 무슬림들의 상호 대이동으로 살육이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백만 명이 사망했고 1천 5백만 명은 이재민이 되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인도 관계 강화 모색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62년에 국경 무력 분쟁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 대치를 해소했다. 인도에 있어 수천 킬로미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서로 잘 맞는 지도자들이다. 미국과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등 동일한 가치를 보유한 국가들로서 협력 요소가 크다.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인도 간 협력의 틀인 BRICS 체제 이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 관계는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 등 비교적 무난한 편이나, 미국과 인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인도·러시아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향후에도 인도와 러시아 관계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러시아·중국·인도 간 3각 관계와 이들 3국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인도·러시아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3대 강국과 미국은 국제 정치를 책임지는 주요 당사국들이다. 이들 국가 간의 관계 형성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국에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서남아시아 정책(일명: 대아프가니스탄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추가 배치를 통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남아 지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세력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표명하고 있다.

V. 중국과 러시아 관계 (일대일로 정책과 유라시아경제연합)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경제 확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로, 교량,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슬림 포위 전략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중국 서쪽에 위치한 이란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데, 이란은 광대한 영토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인구와 오랜 제국의 전통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지대 역할을 해왔다. 장기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를 2등 국가로 밀어내고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과 중국 만주 등 4,160킬로미터 이상의 육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 국경은 불과 10년 전에 획정되었다. 중·러 양국은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닉슨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대 중국 관계 개선, 소련과의 데탕트(détente) 정책을 가능케 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6백만 명에 불과한데,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19세기에 중국은 극동 지역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했는데,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 회사는 카자흐스탄 원유를 유럽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를 서부 중국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 지역의 송전선과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중

국 자본은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적 지주가 되고 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는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창설되었다. 러시아는 극동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발트해와 흑해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자유 무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과 NATO 동맹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보 보장으로 중국이 유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그리스는 경제, 그리스 정교 등을 둘러싸고 EU와 긴장 관계가 조성됨에 따라 러시아 쪽으로 경사되었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리스 피레우스(Piraeus)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이 그리스에서 기선을 잡게 되었다. 중국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에서 원전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건설 수주를 둘러싸고 미국 및 EU 국가들과 경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고 상호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있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역 관계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대러시아 의존도가 완화되었다.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등 중국의 잠재적 적국들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 무기 디자인을 복사하고 있어 양국 간에는 상당한 불만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은 양국 관계가 편의적 동맹 관계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내적 불안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중국 서부 지역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는데, 무슬림인 투르크계 위구르 소수 민족 고향인 동(東)투르크িস탄이 그것이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는 달리 위그르 족은 엘리트 지도층이 부재하여 북경과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 세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968년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 질서』에서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될수록 사회의 각종 제도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산층이 불안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는 경제 성장 완화에 따라 중국 내 한족과 위구르 등 소수 민족 간 사회·인종·종교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통성의 위기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일대일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국 국내 안정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러 간 지정학적 경쟁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상황에 따라 이들 두 유라시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쪽 지역에서의 중국의 주도권(hegemony) 장악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도 중부 유럽과 중동 일부를 러시아에 떼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자유 무역 증진과 인권, 시민 사회 격려 등을 통해 이 지역 국가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VI. 중국과 인도 관계

1. 인도·중국 간 지정학적 환경

인도는 영토 면적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며, 인구로는 2번째이고, 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9,000마일의 수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이 가능하고, 풍부한 농경지와 석탄 생산 국가이며, 원유와 가스 생산국이다. 인도는 석탄, 원유, 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이들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인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히말라야산맥이다.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은 티베트 문제인데, 티베트 보유를 원하는 중국은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며 거점 고지인 티베트를 인도가 차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티베트 병합에 대한 대응으로써 인도는 달라이 라마의 거처와 히마찰프라데시

주 소재 다람살라에 티베트 독립운동본부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장기 보장 정책이었다. 이러한 인도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불편해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네팔의 마오주의자(Maoist) 운동에 중국이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도는 중국이 통제하는 마오주의자가 주도하는 네팔을 보고 싶지 않았으나, 중국의 자본과 무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요즘 중국은 마오주의(Maoism)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인도가 주변 소국 문제에 관심이 커질수록 중국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줄어들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인도 간 현안은 중국이 남(南)티베트라고 주장하는 인도 동북 지역 소재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문제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서쪽 지역인 ‘타왕’ 지역에 대한 영유권만을 주장했는데, 2000년 초에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1955년 이래 인도가 주권을 행사해온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중국, 부탄,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전략 지역이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인도가 티베트 독립 주장을 못 하도록 하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편자브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2천1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시크족의 저항 활동은 현재는 잠잠한데 재차 점화될 수 있는 무장 분리주의 운동의 하나다. 1억5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 내 무슬림 인구는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삼 주에는 분리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보도어 사용인구 운동단체와 아셈무슬림통합해방타이거스는 무슬림 아삼 주 내 독립 국가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인구의 75%가 침례교도인 나가랜드에는 독립 크리스찬 국가 창설 움직임도 있다. 인도는 이들 분리주의 운동 단체들의 다양성을 허용하면서 단일 국가로서 인도의 단합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보다는 해상에서 대결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육로에서는 히말라야산맥이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도 양국은 해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해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인도는 25년 전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look east”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베트남·일본·미얀마·필리핀·태국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2.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 군사적 대치 상황 해소

히말라야 국경 지역을 위요한 인도와 중국 간 군사 충돌 문제가 3개월간의 군사적 대치 끝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1962년 중국이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Aksai Chin)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설했을 때 중국과 인도는 국경 전쟁을 했다. 2017년 6월 중국은 인도의 우방인 부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클람(Doklam) 고원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을 개시했다. 도클람 고원 지역은 가장 좁은 지역의 넓이가 27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전략 지역으로, 육지로 둘러싸인 동북 지역 주들로 가는 ‘실리구리 회랑(Siliguri Corridor)’을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중국이 건설하려 한 도로가 건설될 경우 “닭의 목(Chicken’s Neck)”으로 알려진 회랑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중국이 탱크와 야포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6월 중순 경무장 인도 병력들이 분쟁 지역으로 진입하여 중국의 도로 건설 공사를 중단시켰다. 약 300명의 중국, 인도 병사들이 100미터를 두고 대치했다. 북경은 인도 병사들이 도클람 고원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했다. 양측이 철수하고 중국은 도로 건설을 중단한다는 인도 측 해결 방안을 중국이 받아들였다. 인민해방군과 함께 중국 측 불도저도 철수했다.

VII. 결론: 대전략의 전환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유라시아 외교 정책과 관련해, 친(親)중국에서 친(親)러시아로의 대전략(grand strategy) 전환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 육군 전략가인 토머스 라일리(Thomas P. Reilly)의 정의에 따르면, ‘대전략’은 일종의 통합 전략으로서 국가가 지키고 신장하려는 가치와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수준의 사고와 방향 설정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패권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국제 환경에 직면하여 ‘재균형’ 및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가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경쟁 국가’로 인식한 반면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중 봉쇄에 협력 파트너로 삼으려는 듯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친밀 관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미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 전환 정책은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1991년 냉전 붕괴 후 중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NATO 확대, 이라크 등 중동에서의 미국의 일련의 전쟁 수행,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등 미국의 대외 정책이 중·러 양국 간 결속을 긴밀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미·중·러 삼각관계에서 미국은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969~1974년간 재임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은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기며 막대한 지정학적 이득을 얻었다. 미국은 예외주의와 군수 산업계의 로비,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딥스테이트(deep state: 민주주의 제도 밖에 숨은 권력 집단)’ 등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수 산업계와 국방부 딥스테이트들은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완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도발해야 차세대 항공모함을 만들고 값비싼 방어 시스템을 지구상 곳곳에 건설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외교는 군산 복합체의 이익에 좌우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중·러 관계는 매우 어려웠는데, 특히 1968년 양국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다. 중·러 간 분쟁의 시작은 민족통일주의 운동에 있었다. 중국은 1689년 불평등 조약으로 러시아가 가져간 시베리아 150만 제곱킬로미터 영토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러간 무력 분쟁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다. 닉슨과 키신저는 중·러 간 상호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교 정책을 폈다.

중·러 양국은 서로 적대하는 동시에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경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미·중·러 삼각관계를 능숙히 다루면서 국제 사안에서 유리한 입장에 섰다. 러시아는 베트남전 이후 논의 중이던 평화 협정을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할 정도로 중·러 관계는 엉망이었다. 중·러 양국은 상호 협력의 혜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막대한 힘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이 중·러 양국과 동시에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중·러 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국수주의적이고 이념적이며 인종적인 요인이 서로의 그릇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1979년 카터 미 행정부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후 미·중·러 3국 간 외교적 동력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중·러 간 갈등도 점차 완화되었다. 중·러 양국이 쌓인 앙금을 털어내는 데만 수년이 걸렸는데, 1980년대 후반 중·러 관계 정상화는 확고하게 진전되고 있었다.

2004년 10월 초 중·러 양국의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푸틴은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부존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합의했다. 체제 붕괴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러시아와 현대화에 매진하던 중국은 세계 유일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NATO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중·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후, 미국 등 서방이 부과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국과 30년 동안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이 부과한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생존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중·러 관계가 호전되면서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국제 사안에서 입장 조율을 시작했다. 군사적 협력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간 갈등을 통해 유일 패권을 누리던 때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www.ifans.go.kr